

이원수 문학의 본질과 지향점

—해방기 산문 『오월의 노래』와 『숲 속 나라』를 중심으로

김윤정*

국문초록

해방기에 발표한 이원수의 소년소설 『오월의 노래』와 장편동화 『숲 속 나라』는 이원수 문학의 본질과 지향을 강하게 드러내고 있는 점에서 주목을 요한다. 『숲 속 나라』와 『오월의 노래』의 공통점은 바로 ‘소년회’다. 두 작품 속에서 이원수 문학의 본질과 지향점은 ‘소년회’를 통해 드러나고 있다.

이원수는 1925년 마산 신화소년회를 조직해 활동하기 시작하는데, 이 해는 이원수에게 있어서 문학적 기원이 되는 해이다. 이원수 문학의 본질은 상실된 기원에 대한 그리움에 있다. 소년 이원수에게 있어서 상실된 기원은 고향과 가족이라는 협소한 범위에 머물러 있었다. ‘소년회’ 활동은 그를 민족과 조국에 대해 각성하는 계기로 작용한다. ‘우리민족 = 어린이’라는 상정은 이원수 문학의 본질인 그리움이 가족애로 환원될 수밖에 없는 필연성으로 작용한다. 『오월의 노래』에서 ‘소년회’는 그리움이 가족애로 환원되는 공간이며, 『숲 속 나라』에서 ‘소년회’는 그리움이 가족애로 환원됨으로써 복원된 가족을 국가의 형태로 형상화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원수는 왜 해방기에 ‘소년회’를 소환한 것일까? ‘소년회’는 소년시절의 표상으로서 친일문학으로 오염된 상태에서 벗어나 자신의 문학적 기원으로 돌아가는 데 가장 유용한 도구였다. ‘소년회’는 이원수 문학의 기원이며, 이원수 문학의 본질과 지향점을 함의하고 있기 때문이다.

■ 주제어: 『오월의 노래』, 『숲 속 나라』, 산문, 소년회, 그리움, 문학의 기원

* 인하대학교, 2chakim@hanmail.net

목 차

- | | |
|--|--|
| 1. 운문에서 산문으로의 전기(轉機)에서
소환된 ‘소년회’
2. 『오월의 노래』와 마산 신화소년회
1) ‘그리움’의 문학
2) ‘소년회’ 활동과 조국에 대한 각성 | 3. ‘소년회’의 유토피아적 형상화, ‘숲 속
나라’
4. ‘소년회’와 문학적 기원
5. 맺음말 |
|--|--|

1. 운문에서 산문으로의 전기(轉機)에서 소환된 ‘소년회’

이원수는 우리나라 근대아동문학의 선두에 서서 비판적 리얼리즘이라
는 뚜렷한 길을 연 작가다. 그의 이러한 문학적 성취는 운문에서 시작해
산문으로 옮겨 가는데, 그 분기점이 되는 시기가 바로 해방기이다. 일제강
점기 동안 오로지 동요만을 창작하던 이원수는 해방기에 들어 산문을 발
표하기 시작한다. 특히 장편동화 『숲 속 나라』와 소년소설 『오월의 노래』
는 이원수 문학의 본질과 지향을 강하게 드러내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을
요한다. 『숲 속 나라』¹는 이원수의 첫 번째 장편동화로 1949년 2월부터
1949년 12월까지 어린이 잡지 『어린이나라』에 총 9회에 걸쳐 연재된다.
『오월의 노래』는 자전적인 소년소설로 1950년 2월부터 1950년 6월까지
『진달래(아동구락부)』에 『어린별들』이라는 제목으로 5회에 걸쳐 연재하다가
전쟁으로 인해 중단된다. 이후 1955년 신구문화사에서 『오월의 노래』²라
는 제목으로 출간된다.

1 『숲 속 나라』는 이후 개작하여 1954년에 신구문화사에서 단행본으로 출간된다. 하지만 본고에서
는 해방공간이라는 특수한 시대적 상황에서 이원수 문학의 본질과 지향점을 찾는 데 목표가 있는
바, 『어린이나라』에 연재되었던 작품을 그 연구 대상으로 삼고 있음을 밝힌다.

2 『오월의 노래』는 제목만 바뀌었을 뿐 개작 양상이 보이지 않으므로, 1955년 신구문화사에 출간한
완성본을 연구 대상으로 삼는다.

해방기는 이원수에게 있어서 운문에서 산문으로의 변화라는 전기(轉機)적 의미를 가지고 있다.³ 운문에서 산문으로의 전환은 이원수가 남긴 다음 글에서 그 이유를 짐작할 수 있다.

해방의 기쁨은 또 다른 고민을 우리들에게 안겨 주어, 정치적 혼란과 국토의 양단, 사상적 상극으로 이리 밀고 저리 밀리는 신세였지만, 나에게서는 그 때까지의 시작(詩作) 외에 산문을 쓰기 시작한 전기(轉機)로서의 의미가 더 컸다.

압제자는 갔으나 감시자가 더 많아진 조국의 자리 잡혀지지 않은 질서 위에, 이욕(利慾)에 눈이 시뻘개진 사람들, 이들이야말로 노예근성을 가진 벼락 장군처럼 사방에서 큰소리들을 치고, 또 권세와 재물을 쌓아 올리고 있었다.

그런 세상에서 자라는 아동들의 형편을 보고 동시를 쓰는 나의 마음은 울분과 탄식에 젖어들지 않을 수 없었다. 그 때의 시 〈너를 부른다〉는 탄식조의 동시였다.

(중략)

이런 동시로써 내 가슴이 후련해질 까닭이 없었다.

동화를 쓰자, 소설을 쓰자, 그런 것으로 내 심중의 생각을 토로해 보자는 속셈이었다.

쫓겨 가는 왜인에게 주먹을 들어 보이며 욕을 하는 사람들이, 들어오는 외인에게는 허리 굽혀 환영을 한다. 외인의 것이면 물자건 풍습이건 즐겨 받는다. - 이런 세상이 싫었다.

장편동화 〈숲 속 나라〉는 나의 산문 작품으로 처음의 것이요, 그건 어린이들의 나라를 그린 것이었다. 자유와 사랑과 자주의 나라, 외세를 배격하는 참된 독립의 나라를 환상적인 이야기로써 만든 동화였다. 나는 이 작품에서 내 심중에 바라는

3 하지만 이원수 문학을 해방 이전에는 운문 중심, 해방 이후에는 산문 중심이라 단정 지을 필요는 없다. 그는 해방기에도 「토마토」(1948), 「오키나와의 어린이들」(1946), 「너를 부른다」(1946)와 같은 리얼리즘의 대표 시를 내놓았으며, 말년에도 「나뭇잎과 풍선」(1980), 「겨울 물오리」(1981)와 같은 명편을 남겼다.

사랑과 자유의 나라를 만들어 보려고 했던 것이다.

이와 거의 같은 때에 쓴 <5월의 노래>도 서정적인 이야기로서, 일제하의 어린 시절의 생활을 소재로 한 항일성의 소설이었다. (『나의 문학 나의 청춘』, 『아동과 문학』(이원수아동문학전집 30), 웅진출판, 1995, 255~257면.)⁴

이원수는 해방을 맞이한 조국이 여전히 외세에 빌붙어 제 욕심만 채우려는 사람들에 의해 어지럽게 된 것에 분노한다. 그런 사회 속에서 불행한 처지에 놓여 있는 어린이들을 보며 울분에 젖은 그는 그 간절한 마음을 후련하게 표현하기 위해 산문을 쓰기 시작했다고 밝히고 있다. 결과적으로 운문에서 산문으로의 변화는 비판적 리얼리즘 작가로서 이원수의 면모를 한층 더 강화시키는 역할을 한다. 하지만 이원수가 일제 말 친일문학에 이름을 올린 사실을 생각할 때, 위의 진술은 생각해 볼 여지가 생긴다. 이에 대해서는 논의의 진행에 따라 다시 언급하게 될 것이다.

『숲 속 나라』와 『오월의 노래』는 이원수에게 있어서 문학적 전기에 해당하는 시기의 첫 자리에 놓여 있는 작품이다. 1949년에 『숲 속 나라』가 어린이 잡지인 『어린이나라』에 먼저 연재 되지만 사실 창작시기는 『오월의 노래』가 더 앞선다.

1947년에 쓰기 시작하여 잡지 『아동 구락부』에 연재한 소년 소설 <5월의 노래>는 일제하에서 일본 정치에 시달리며 저항하는 아동을 그린 것으로, 이 작품의 구상과 소재는 내 어린 시절과 영어(囹圄) 생활에서 얻어진 것이었다. (『아동과 문학』(이원수아동문학전집30), 254면.)

4 1994년 웅진출판에서 이원수의 작품을 수집해 총 30권으로 구성된 이원수아동문학전집을 발행한다. 본고에서 다수 인용되는 바, 이후에는 서지사항 중 출판년도와 출판사는 생략해 표기하도록 하겠다.

『오월의 노래』는 1947년부터 이미 집필 중인 원고였다. 이원수는 해방 직후, 어린 시절을 중심으로 하는 자전적 소설을 구상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원수는 『오월의 노래』에서 ‘소년회’ 활동을 통해 민족과 시대적 각성으로 나아가는 아동상을 보여주고 있다. 해방을 맞이한 조국에서 그는 도리어 일제 식민지기로 돌아가 ‘소년회’를 회상하고 있는 것이다. 이후 1948년에 집필한 『숲 속 나라』에서는 ‘소년회’의 유토피아적 형상으로서 ‘숲 속 나라’를 창조해내고 있다. 특기할 사항은 두 작품에서 모두 ‘소년회’를 작품의 중심에 두고 있다는 점이다. 두 작품을 창작한 해방정국은 사회적으로는 좌우이념의 첨예한 대립과 자본주의의 경제적 침략이 이루어지던 때였으며, 이원수 개인적으로는 일제 말에 쓴 친일작품에 대한 부담감이 작용하던 시기였다. 이원수는 바로 이 미묘한 시점에서 ‘소년회’를 소환한 것이다. 본고는 이 지점에 ‘왜?’라는 의문을 던지며 출발한다.

이원수 문학과 소년회의 관계에 대해 진행된 선행연구로는 원종찬이 쓴 「좌우의 벽이 없었던 우정의 노래—소년운동과 아동문학」⁵과 「이원수와 마산의 소년운동」⁶이 있다. 두 편의 소논문은 이원수가 벌인 소년회 활동에 대한 실증적인 자료를 제시하는 데 더 큰 비중을 두고 있다. 따라서 소년회 활동이 『숲 속 나라』와 『오월의 노래』 창작에 반영되고 있다는 사실만을 확인하고 있을 뿐이다. 본고는 『숲 속 나라』와 『오월의 노래』가 해방 공간이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창작되었다는 사실과 ‘소년회’가 그 중심에 놓여있는 점에 대해 따져 물음으로써 기존 연구의 확장에 기여하고자 한다. 본고는 이원수가 『오월의 노래』와 『숲 속 나라』에서 ‘소년회’를 소환한 이유와 ‘소년회’가 의미하고 있는 바를 찾아보려 한다. 이것은 해방공간이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소환된 ‘소년회’가 이원수 문학의 본질과 지향점

5 원종찬, 『창비어린이』, 창비, 제11호, 2013, 9.

6 원종찬, 『아동문학과 비평정신』, 창비, 2005.

닿아있음을 밝히는 동시에 그 배면의 함의를 읽으려는 일련의 시도가 될 것이다.

2. 『오월의 노래』와 마산 신화소년회

앞서 밝힌바 『오월의 노래』는 이원수의 자전적 소설이다. 이원수는 1911년 음력 11월 17일 경남 양산읍 북정리에서 목수인 父 월성(月城) 李氏 문술(文術)과 母 여양(驪陽) 陳氏 순남(順南) 사이에서 태어나는데, 칠남매 중 다섯째로 외아들이었다. 별이가 신통치 않았던 아버지는 가족을 이끌고 창원과 김해를 거치며 여러 차례 이사를 다니다가, 이원수가 11세인 1922년에 마산에서 그나마 길게 정착한다. 이때 이원수는 마산공립보통학교 2학년에 편입한다. 1923년(12세)에는 어린이 잡지인 『어린이』와 『신소년』을 애독하기 시작한다. 1925(14세)년에는 마산 신화소년회를 조직해 활발하게 소년회 활동을 벌이는 한편 『어린이』에 「고향의 봄」을 투고하며 문예적 기질을 발휘한다.

『오월의 노래』 첫 머리는 “내가 자란 고향은 한적한 시골이었다. 나는 아홉 살 될 때까지 그 마을에서 자랐었다.”는 말로 시작되고 있다. 이후 주인공 노마는 그 마을을 떠나 H라는 동네로 이사를 가게 된다. 그곳에서 노마는 보통학교에 편입해 들어가고, 『어린이』지를 접하면서 소년회에 가입하게 된다. 하지만 그곳에서도 아버지의 수입이 변변치 않아 노마가 H시를 떠나면서 이야기는 끝난다. 그러니까 『오월의 노래』는 이원수가 창원을 떠나 마산의 한 마을에 잠시 정착했던 시기의 경험을 축소한 이야기로 써, 소년문예사와 소년운동가로서의 시발점을 보여주는 이야기인 셈이다.

『오월의 노래』는 크게 두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전반부가 아버지, 누

나와 얽힌 가족사에 관한 이야기라면, 후반부는 온전히 ‘소년회’ 이야기가 차지하고 있다. 『오월의 노래』의 이러한 구조는 이원수 문학의 본질과 그 지향점을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1) ‘그리움’의 문학

이원수의 전 생애를 거쳐 그의 작품 속엔 그리움이 짙게 배어있다. 그 그리움의 근저에는 아버지가 있다. 이원수는 어머니보다 아버지를 더 따르고 좋아했었다. 이원수의 아버지는 가야금을 직접 만들어 산조를 연주 해주기도 하던 다정한 분이였다. 『오월의 노래』에는 아버지와와 유명한 일화가 등장한다. 어느 날 이원수는 몸이 약한 어머니에게 쓸 약을 캐기 위해 아버지와 함께 산으로 간다. 도중에 좁다란 비탈길에서 나뭇짐을 지고 내려오는 나무꾼과 마주친 적이 있는데, 그 때의 일을 이원수는 아래와 같이 회상하고 있다.

내가 진영에 살 때(아홉 살 때) 나는 어머니의 약에 쓸 할미꽃 뿌리를 캐러 가는 아버지를 따라 동네 뒷산에 오른 일이 있었다.

산길을 가는데 마침 지게에 나무를 지고 오는 나무꾼을 만났다.

앞서 가던 나는 나무꾼과 마주쳤을 때, 좁은 산길에서 미처 피하지 못했는데 무거운 짐을 진 나무꾼이 길 아래로 비켜서서 내가 지나가기를 기다려 주었다.

뒤에서 이 광경을 보신 아버지가 화난 소리로 내게 말씀 하셨다.

“너는 짐을 지지도 않았는데 어찌 먼저 피해서 짐 진 사람에게 길을 내주지 않았느냐? 일하는 사람에게 겸손하고 폐를 끼치지 말아야 해!”

일하는 사람을 낮춰 보지 말라는 아버지의 말씀은 내 마음에 커다란 깨달음을 갖게 해 주었다.

그런 아버지를 나는 마산에서 살던 15세 때, 겨울 눈 오는 날, 무학산 어리에 장사지내고 외로운 소년이 되었던 것이다. (『애들아 내 얘기를』(이원수아동문학전집20), 270면.)

이원수가 나무꾼에게 길을 비켜주지 않자 아버지는 화를 내며 “일하는 사람에게 겸손하고 폐를 끼치지 말아야”한다고 말한다. 이원수는 당시 아버지가 했던 말씀을 매우 분명하게 기억하고 있으며, 그의 수필에서 수차례 언급하고 있다. 그리고 『오월의 노래』에서도 거의 똑같이 재현하고 있다.

“노마야.”

“네?”

내가 아버지를 돌아보았을 때, 아버지의 얼굴에는 노여운 빛이 역력히 나타나고 있었다.

“너 저 나무꾼 자세 보았지?”

“네에.”

“그럼 너도 그런 걸 봤으면 어째 그 사람한테서 먼저 길을 비켜 주지 않니? 짐을 진 사람이 이런 산길을 다니기가 얼마나 어려운데, 좁은 길에 네가 비켜 주지 않고 있으면 그 사람이 어떻게 지나간단 말이나? 너 땀에 그이가 저 골짜기로 미끄러져 떨어지길라도 하면 어떡할 테냐……. 일하는 사람을 아껴야 한다. 헛 누더기를 입어도 짐을 진 사람이면 미리 길을 비켜 드려야 하는 법이야, 알겠니?”

나는 그만 큰 잘못을 저질렀구나 생각했다. (『오월의 노래』, 『숲 속 나라』(이원수아동문학전집1), 185면.)⁷

7 이후 「오월의 노래」로 표기함.

앞의 글에서 일하는 사람을 낮춰보지 말라는 아버지의 말씀은 『오월의 노래』에서 노마 아버지의 목소리를 통해 ‘일하는 사람을 아껴야 한다’라는 삶의 윤리로 표현된다. 노동자를 대우해줘야 한다는 윤리는 막 철이 들어가는 열 살 무렵의 소년 이원수에게 삶의 원리로 자리 잡는다. 이원수가 노동자에 대한 존중을 삶의 원리로 받아들일 수 있었던 것은 아버지가 목수였을 뿐만 아니라, 동네 사람들 역시 광산에서 또는 수리조합에서 노동자로 살아가고 있었기 때문이다. 소년 이원수가 본 세상은 일하는 사람들의 세상이었던 것이다. 하지만 노동자들의 삶은 언제나 비참했다. 이원수는 어린 시절 수리조합의 논들이 황금들판으로 출렁이는데도 먹고 입을 것이 없어 고향을 떠나야만 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강한 의문을 품는다.

그렇게까지 땅이 모자라서일까? 하고 나는 생각했었다. 그건 반드시 땅이 모자라서가 아니었다. 농사를 지어도 빼앗기는 것이 너무 많아서였다.

이렇게 고향을 등지고 떠나는 사람들은 어디에서나 볼 수 있었다. 마산에서도 역에 나가면 으레 눈에 띄었다.

농촌에서 이웃집이 떠나는 걸 보고 마음 아파하는 사람들이 고향을 떠나는 이들의 슬픔 같은 걸 내 가슴에 느끼게 해 주었다. 그것은 우리 민족이 외국의 압제를 받고 살게 되어 있기 때문에 당하는 결과라는 걸 알게 되면서부터 더욱 크게 내 마음을 아프게 했다. (『애들아 내 얘기를』(이원수아동문학전집20), 260~261면)

이원수가 한 위의 진술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의 문학에 깔려있는 그리움의 정체를 알 수 있는 대목이기 때문이다. 위 글에서 이원수는 “이웃집이 떠나는 걸 보고 마음 아파하는 사람들이 고향을 떠나는 이들의 슬픔 같은 걸 내 가슴에 느끼게 해 주었다.”고 긴 문장으로 서술하고 있다. 이 문장에서 이원수가 느낀 ‘슬픔’은 바로 ‘그리움’이다. 그것은

‘고향을 떠나는 이’들이 고향을 생각할 때마다 터져 나올 그리움이며, ‘이웃집이 떠나는 걸 보고 마음 아파하는 사람들’이 ‘고향을 떠나는 이’들에게 품게 될 그리움인 것이다. 이원수에게 있어서 그리움은 매우 강렬한 감정이었다. 그는 삶에서 많은 것들을 상실했고, 그의 삶은 상실한 것들에 대한 그리움으로 지탱되었다. 이원수가 어린 시절부터 아버지를 따라 수차례 이사한 사실은 앞서 말했다. 이원수의 대표작 「고향의 봄」은 마산으로 이사 한 뒤 창원을 그리워하며 지은 동요이다. 이 동요를 『어린이』지에 투고한 1925년은 공교롭게 아버지가 돌아가신 해이기도 하다.⁸ 이원수의 아버지 이문술은 1925년 음력 1월 6일에 사망한다. 아버지가 죽은 때가 막 한 해가 시작된 시기이니, 「고향의 봄」은 아버지의 죽음 이후에 창작했을 가능성이 크다. 고향을 떠나오고, 아버지를 잃고, 가난한 살림에 누나들을 공장으로 떠나보내면서 고독한 소년이 된 이원수는 그리움을 노래하기 시작한다. 무엇에 대한 그리움인가. 그것은 고향, 아버지, 가족으로 표상되는 자신의 기원에 대한 그리움이다. 다시 말해 이원수 문학에 깔려 있는 그리움의 정체는 바로 상실된 기원에 대한 그리움이며 이것은 이후 이원수 문학의 본질을 이룬다. 또 ‘그리움’은 장차 그의 문학에서 ‘외국의 압제’에 의해 잃어버린 조국에 대한 그리움으로 확장된다. 조국이 자신의 또 다른 기원임을 각성하게 된 계기가 바로 소년회 활동이다.

2) ‘소년회’ 활동과 조국에 대한 각성

학교에서 소년회의 회원이 되는 것을 금하게 되어, 소년회는 비밀히 나가야 하게 되는데, 이 소년회라는 것이 또한 우리 민족의 마음을 깨우쳐 주는 곳이 되었

8 「고향의 봄」은 1925년에 『어린이』에 투고되었고, 이듬해인 1926년 4월호에 당선되었다. 『이원수와 한국 아동문학』(이원수 탄생 백주년 기념논문집 준비위원회, 창비, 2011) 이원수 연보 참조.

던 것이다.

나는 소년회에서 하는 동화 대회 같은 데서 연극도 해보고, 노래도 불러 보았다. 글짓기, 연극하기, 등산, 축구……. 갖가지 소년회에서 하는 일은 모두 재미있고 즐거운 것뿐이었다.

나의 어린 시절에서 ‘우리’라는 생각을 더욱 굳게 해 준 불칸 선생님⁹이나 소년회나 모두 나의 은인이 아닐 수 없다.

그리고 내 마음 속에 굳어진 ‘우리’란 생각 속에는, 가난한 사람들이 거의 전부인 우리 민족을 사랑할 줄 알아야 한다는 생각도, 역시 자라고 있었다. (『애들이 내 얘기를』(이원수아동문학전집20), 265면)

이원수는 위 글에서 소년회 활동을 통해서 마음속에 ‘우리’라는 생각이 더욱 굳어졌다고 말하고 있다. 여기서 이원수가 말하는 ‘우리’란 우리 ‘민족’ 나아가서는 ‘조국’을 의미한다. 이원수의 조국에 대한 각성 과정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그의 소년회 활동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원수가 마산에서 신화소년회를 조직해 활동하기 시작한 것은 1925년(14세)이었다. 마산 신화소년회는 1925년 3월 14일에 동아일보 마산지국에서 창립회를 열었다. 마산 신화소년회는 현용택을 위원장으로 삼아 8명의 위원과 2명의 고문, 40명의 회원으로 조직되었다. 이렇게 구성된 신화소년회에 이원수는 위원 중 한 명으로 참여하고 있다.¹⁰

9 위의 글에서 이원수는 마산공립보통학교의 선생님이었던 불칸 선생이 학교에서 금지하고 있던 조선 역사에 대해 아이들에게 알려주다가 쫓겨 갔다고 밝히고 있다.

10 『동아일보』, 1925.3.22.

〔표 1〕 신화소년회 관련 보도

연도	월일	기사 제목	일간지
1925	3.22	新化少年會 馬山에서 創立	동아일보
	3.23	新化少年會 創立 祝賀會	동아일보
	4.1	馬山新化少年會 創立總會	동아일보
1926	1.20	馬山普通敎長 少年會를 反對—各團體蹶起와 씩씩少年會는 調査委員 選	동아일보
	4.27	各地 어린이 紀念	시대일보
	6.24	馬山新化少年 正總	시대일보
	8.23	소년토론회—마산신화소년회	동아일보
	8.30	신화소년회 통상회	동아일보
	12.10	四團體의 아버지會 開催	중외일보
	12.12	신화소년회서 아버지회 소집	동아일보
1927	6.8	馬山兩少年 合同 新化少年會와 씩씩少年會를 馬山少年會로	동아일보
	8.11	南鮮少年小女 懸賞雄辯 盛況裡 終幕	중외일보
1928	9.7	少年討論會 禁止	동아일보

당시 마산에는 신화소년회 외에도 씹씩소년회, 일광소년회, 개조소년회, 불교소년회, 무산소년회, 셋별소년회, 마산소녀회 등이 활동하고 있었다. 1926년 1월에 이들 단체가 함께 쫓겨나서 일어 발생하는 데, 바로 위의 글 첫머리에서 말하고 있는 “학교에서 소년회의 회원이 되는 것을 금하게” 한 사건 때문이었다. 이원수가 다니던 마산공립보통학교의 일본인 교장 우에하라(上原)가 학생들을 소년회에 참가하지 못하게 하고, 가입한 학생들에게 탈퇴를 강압하는 사건이 발생한 것이다. 그러자 분노한 마산의 소년단체들은 조사위원회를 구성해 조사에 착수하고 사회의 여론을 환기하기로 결의한다. 당시 분위기는 아래의 기사 내용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마산보학교장 소년회를 반대

각 단체 쫓겨나와 씹씩 소년회는 조사위원 선

마산 공립 보통학교 상원교장이 거 16일 조레스 석상에서 본교학생은 남녀 소

년회에 절대로 참가 못 하는 동시에 현재에 각 소년 단체에 가입한 남녀학생도 탈퇴하라고 강압한 사건에 대하여 마산 씩씩 소년단과 마산소년독서회에서도 크게 분노해야 거 17일 하오 7시에 마산노동야학교내에서 임시총회를 개하고 좌기 위원을 선정하여 그 사실내용을 상세히 조사하여 학교당국자에게 질문을 하는 동시에 사회의 여론을 환기하기로 결의하였다.

조사위원 -최명출, 이사환, 김동윤, 이태부

각 단체 쫓기

별향과 여히 상원교장이 남녀학생을 강압적으로 소년단체에 참가 못 하게 함에 대하여 각 소년 단체는 물론 마산 각 청년단체와 기자단에서도 크게 분노하여 그 사실진상을 조사하며 학교 당국자에게 질문을 할 터이라는 바 마산보교에 대하여 소년 문제 외에 한 행동이 잇섯슴으로 금번에는 그 모든 사실에까지라도 철저히 조사하여 사회에 광포하리라고. (『동아일보』, 1926.1.26.)

이 사건이 발생한 1926년은 신화소년회가 조직된 다음 해로 이원수 역시 쫓기에 동참했을 것으로 보인다. 이원수는 1911년, 한일합방이 이루어진 다음해에 태어났다. 민족이나 조국의 개념이 부족한 이원수에게 소년회 활동은 우리 민족에게 가해지는 일제의 탄압을 경험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이것은 조국에 대한 각성을 불러일으킨다. 『오월의 노래』에 그 과정이 잘 나타나고 있다.

『오월의 노래』에서 이 사건은 〈우리말 사건〉으로 그려지고 있다. 노마가 다니는 학교에서 우리말을 쓰지 못하게 하려는 정책을 펼쳤다. 그런데 학교에서 우리말을 쓰는 아이들이 유독 소년회에 가입한 아이들이 많으므로 전교학생을 대상으로 소년회에 가입한 아이를 찾아내 점수를 깎고 정학 처분까지 하겠다는 것이다. 이 사건에 대한 노마의 마음이 드러나는 한 장

면을 살펴보자.

극 연습을 마친 우리는 박 선생님께서 한 마디 훈계를 들어야 했다.

“우리 소년회는 일본 식민지 교육의 해독을 얼마만이라도 막아 내는 힘이 되어야 한다.”

고 사뭇 격한 어조로 말씀하셨다.

“박 선생님, 우리는 조선 사람이란 것을 잊지 않겠습니다.”

상호가 이런 말을 했다. 나도 가만 있을 수가 없었다.

“저도 그러겠어요.”

하고 결심이라도 하는 표정을 했다. (『오월의 노래』, 215면.)

아동문학평론가 이오덕은 『오월의 노래』에서 주인공 노마가 아직 3학년으로 너무 어리기 때문에 소년회의 중심인물인 상호와 소년회의 위원장인 박 선생을 작가의 분신으로 봐야 한다고 말한다.¹¹ “우리는 조선 사람이란 것을 잊지 않겠습니다.”라는 상호의 진술은 노마의 재창으로 되풀이되며 조국에 대한 이원수의 마음을 대변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일제에 의해 빼앗긴 조국에 대해 이원수는 조선을 반드시 찾겠다는 표현 대신 “조선 사람이란 것을 잊지 않겠습니다.”라고 말한다. ‘잊지 않겠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 그것은 달리 말하면 ‘그리움’이다.

따라서 이원수가 소년회 활동을 통해서 얻은 ‘우리’라는 각성은 그의 문학 속에서 상실된 조국에 대한 그리움으로 치환된다. 이원수 문학의 본질인 그리움은 일변 고향, 아버지, 가족으로부터 조국으로 점차 확장되는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 하지만 그것을 일방향성으로 보아서 안 된다. 이원

11 이오덕, 「동심의 나라와 자전적 소설」, 『숲 속 나라』(이원수아동문학전집2), 1994, 300면.

수 문학의 본질인 기원에 대한 그리움은 곧 가족애로 환원되기 때문이다.

다음은 『오월의 노래』에 그려지고 있는 수리조합의 한 장면이다.

넓으나 넓은 들판, 파아란 보리밭, 수리 조합에서는 굉장한 양수장 기계로 이 넓은 논밭에 물을 대고, 하늘에서는 해님이 햇별을 고루 내려 쬔어 곡식을 잘 익게 하고, 도로꼬는 그 곡식들을 나르고……. 그런데 이 고장 사람들은 늘 배가 고프는 것이었다.

나는 아까 그 두들겨 맞고 끌려간 사람을 보고, 내가 접때 김 주사네 집에서 야단맞고 울고 오던 일이 생각났다.

잡혀 가는 아버지를 보고 울던 그 소년이 가엾어 보이고, 그 애가 내 일가 친척이라도 되는 것처럼 생각되었다.

나는 도로꼬 길을 혼자 타박타박 걸어오면서도 그 소년의 생각만 하면서, 그 애의 집에라도 찾아가 주고 싶고, 같이 놀아 주고 싶은 생각까지 했다. (『오월의 노래』, 174면.)

노마는 일제가 운영하는 수리조합에 놀러갔다가 조선인 일꾼이 일본인 관리인에게 매 맞는 장면을 목격한다. 일꾼은 곧 순사에 의해 끌려가는데 공교롭게도 마침 도시락을 들고 온 일꾼의 아들 역시 그 장면을 보고 만난다. 소년은 끌려가는 아버지를 보며 울음을 터트린다. 이때 노마는 그 소년에게 ‘일가친척이라도 되는 것’과 같은 마음을 갖는다. 구경꾼으로서의 노마가 생면부지의 소년에게 일가의 감정을 갖게 되는 이유는 무엇 때문인가.

일제강점기 우리민족은 모두 조국이라는 기원을 상실한 존재였다. 이원수 문학에서 우리민족은 자연스럽게 상징적 아버지인 조국을 상실한 어린이의 자리에 놓이게 된다. ‘우리민족 = 어린이’라는 상정은 이원수 문학의

본질인 그리움이 가족애로 환원될 수밖에 없는 필연성으로 작용한다. 따라서 이원수 문학은 아버지를 통한 가족의 복원을 문학의 지향점으로 삼게 된다. 이때 ‘우리민족 = 어린이’이라는 도식 하에서 가족 복원에 대한 지향은 언제나 민족에 대한 가족애로 발현되어 조국의 회복으로 나아가게 된다. 그 과정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바로 『오월의 노래』와 『숲 속 나라』이다.

『오월의 노래』에서 ‘소년회’는 그리움이 가족애로 환원되는 공간이며 그것은 이원수의 문학이 가족의 복원을 지향하고 있음을 잘 보여주고 있다. 또 『숲 속 나라』에서 ‘소년회’는 그리움이 가족애로 환원됨으로써 완성된 가족 공동체적 국가 즉 유토피아로 형상화되고 있다.

3. ‘소년회’의 유토피아적 형상화, ‘숲 속 나라’

이원수의 『숲 속 나라』는 아동문학사에서 최초의 장편동화로 자리 매김되고 있는 작품이다. 하지만 문학적 완성도에 있어서는 만족할 만한 성과를 얻지 못한 작품이기도 하다. 『숲 속 나라』의 줄거리는 다음과 같다. 노마는 어머니는 돌아가시고 아버지마저 어디론가 사라져버려 고아 신세가 되었다. 어느 날 노마는 무작정 길을 따라 걷다가 2차 세계인 ‘숲 속 나라’에 들어가게 되고 그곳에서 어린이로 변한 아버지를 만난다. ‘숲 속 나라’는 어린이들이 정답게 어울려 살아가는 ‘어린이나라’다. 어린이나라의 유일한 적은 경제적 주권을 빼앗으려는 모리배들이다. 어린이나라 사람들은 열심히 일하고 사치하지 않음으로써 모리배들로부터 어린이나라를 지켜낸다. 노마는 숲 바깥 나라에서 여전히 고통스럽게 살고 있는 친구들과 그들의 가족을 ‘숲 속 나라’로 불러온다. 그렇게 모여든 어린이들은 소년회

를 조직해 새로운 나라 건설에 박차를 가한다.

‘숲 속 나라’에서 어린이는 나라를 책임지는 일꾼인 동시에 공부하는 학생이며, 외세로부터 나라를 지키는 병정이기도 하다. 어린이들은 주체적으로 이 모든 것을 해내며 자유롭고 자주적인 나라를 건설해 나간다. 즉 ‘숲 속 나라’는 ‘소년회’를 유토피아적으로 형상화한 공간인 것이다.

1965년 임인수는 『아동문학』지에 「새로운 아동상을 찾아서」라는 제목의 글로 『숲 속 나라』에 대한 때늦은 비평을 신는다. 이 글에서 임인수는 『숲 속 나라』의 도입부를 지목하면서 “하루 아침에 외톨이(孤兒)가 된 것도 그러려니와 너무나 설명이 없이 暗示的이며, 假想的으로 처리된 느낌이다. 어떤 必然性이라 表示되어야 할 텐데 사건 전체가 不透明하게 이끌려 가고 있지 않은가.”¹²라고 비판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이원수는 『아동문학』 7·8월호¹³의 지면을 통해 다음과 같이 답한다.

임씨는 장편 동화 <숲 속 나라>에 들어 있는 불만스런 점-결함들을 잘 지적해 주었다. 나 스스로가 느끼고 있는 미비점을 지적해 주기도 하여 통쾌를 맛보기도 했다.

그러나 한 가지 불만을 말한다면 임씨가 동화와 소년 소설을 혼동하고 있는 점이였다. 주인공 노마가 숲 속 나라에 가게 되는 일에서부터 필연성의 결핍을 느꼈다는 것은 동화의 목적하는 바가 철저한 사실성을 넘어서 갈 수 있다는 것을 모르고 하는 이야기가 아닐까.

필연성의 결핍이라는 임인수의 지적에 대해 이원수는 동화가 가진 환상성에 기대어 반박한다. 동화의 목적하는 바가 사실성을 뛰어 넘을 수 있다

12 임인수, 「새로운 아동상을 찾아서」, 『아동문학』, 제11집, 1965, 3·4월호, 9면.

13 이원수, 「아동문학 프롤로그」, 『아동문학』, 제12집, 1965, 7·8월호, 94~95면.

는 것이다. ‘동화의 목적 하는 바’란 작품이 가진 주제의식이며 넓게는 작가의 문학적 지향점으로 봐도 무방할 것이다. 문제가 된 그 장면을 살펴보자.

노마는 오늘도 동구 밖 빼어난 외 줄기 길을 멍하니 바라보며 아버지를 생각하였습니다. 벌써 몇 달이 되어도 아버지는 돌아오시지 않습니다.

어머니도 없는 노마는 동네 아저씨 집에서 심부름을 해 주며 살고 있었습니다.

노마 아저씨는 “너의 아버지 이 댐에 오신단다. 먼 데 여행 갔으니까 오래 있어 야 오게 된단다.” 이렇게만 말씀 하실 뿐, 가신 곳이 어딘지 뭇 하러 가셨는지 그런 건 도무지 모릅니다.

“아버지는 어디로 가셨어요?”

“저어기 저 길로 갔지…… 언제 저 길로 해서 돌아 올 걸 뭘.”

아저씨는 이렇게 대답 할 뿐입니다.

노마 아버지는 노마가 자고 있는 새 어디론지 가고 없어졌기 때문에 더구나 이상하고 궁금하였습니다.

하루는 노마가 혼자서 아버지가 가셨다는 길로 터벅터벅 걸어가 보았습니다. 그길로 자꾸 걸어 가면 아버지를 만날 것만 같아서 아저씨한테 말도 하지 않고 집을 나선 것이었습니다. (『숲 속 나라』, 『어린이나라』제1권 제2호, 1949, 11면.)

임인수가 필연성의 결핍이라고 지적한 도입 부분이다. 단지 아버지를 만날 것만 같은 느낌만으로 나선 길에서 ‘숲 속 나라’를 찾고 아버지를 만났다는 설정은 임인수에 의해 필연성의 결핍으로 지적된다. 하지만 같은 이유로 『숲 속 나라』의 도입부분은 오히려 이원수 문학의 본질과 지향점을 강하게 보여주고 있다. 상실된 기원에 대한 그리움과 그것의 회복을 욕망하는 문학적 지향이 이원수로 하여금 소설적 사실성 대신 동화적 상상력을 선택하도록 했기 때문이다.

아버지를 향한 노마의 그리움이 너무도 절실하기에 ‘숲 속 나라’로 들어가는 경로의 허술함은 문제 되지 않았던 것이다. 따라서 노마의 간절한 그리움으로 인해 열린 ‘숲 속 나라’는 필연적으로 그리움의 해소 공간이자 상실된 기원을 회복하는 공간이 됨으로써 유토피아로 상정된다. 노마는 ‘숲 속 나라’에서 자신의 기원인 아버지와 가족, 더 나아가 조국을 회복하게 된다.

노마는 ‘숲 속 나라’ 입성 후 곧 아버지를 만난다. 하지만 그것만으로 가족의 복원이 완성되지는 않는다. 이원수는 ‘숲 속 나라’를 하나의 거대한 가족 공동체로 만듦으로써 가족의 복원을 완성시킨다. 따라서 ‘숲 속 나라’가 가진 아래와 같은 가족적 구조는 필연적인 것이다.

[표 2] 숲 속 나라의 가족적 구조

등장인물	숲 바깥에서의 신분 또는 직업	숲 속 나라에서의 역할
할아버지	선생님	할아버지
노마 아버지	노동자	아버지
달님	달님	어머니
노마	고아, 非학생	장남
영이	사과 장수	장녀
정길이 외 아이들	정보 없음	형제들
막내	고아	막내 동생

‘숲 속 나라’에서 발견되는 이러한 가족적 구조는 이원수가 가족의 복원을 얼마나 열망하고 있는지 보여주고 있다. 일제강점기 우리민족이 겪은 가장 우선적이고 현실적인 고통은 가족의 해체였다. 이원수의 가족 역시 해체의 아픔을 겪었다. 누나들은 돈을 벌기 위해 가족을 떠나 공장으로 가야 했고, 가난한 목수였던 아버지마저 일찍 죽고 만다. 이원수에게 유토피아란 가족의 복원과 함께 일상성이 회복되는 공간이다. 하지만 그의 시대

는 이렇게 너무도 당연한 것들이 상실된 시기였다. 따라서 이원수 문학은 가족을 해체하고 일상성을 깨뜨리는 것들에 대해 애기함으로써 역설적으로 가장 현실주의적인 색채를 갖게 된 것이다. 또 이원수 문학은 어린이로 상징되는 우리민족이 상실한 것에 대해 애기하고 그리움에 공감하며, 나아가 그것의 회복을 꿈꾼다. 때문에 가족의 복원에 대한 열망은 빼앗긴 조국에 대한 그리움과 이음동의로 해석될 수 있다.

2차 세계인 ‘숲 속 나라’는 어린이나라이므로 ‘숲 속 나라’에 들어온 어른들은 어린이로 변한다는 규칙이 작동되고 있다. 하지만 그들은 어린이로 변했음에도 불구하고 숲 바깥에서처럼 어른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겉모습은 어린이지만 어른처럼 행동하고 어른의 말을 하는 기형적인 인물이 되고 만 것이다. 이와 같은 허술한 설정은 『숲 속 나라』의 문학적 완성도를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그런데 이것은 오히려 이원수 문학이 가족의 복원을 지향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좋은 증거가 된다.

위의 [표 2]를 통해 확인된 ‘숲 속 나라’의 가족적 구조에서 혈연관계에 해당하는 인물은 노마 아버지와 노마 둘뿐이다. 나머지는 모두 비혈연 관계에 놓인 사람들로서 가족 공동체를 구성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관계가 가능한 이유는 바로 가족애에 있다. 『숲 속 나라』에 나오는 몇 장면을 보자.

노마는 눈물이 났습니다. 낮은 곳에 혼자 찾아왔기 때문이 아니라, 어쩌면 모르는 아이들이 이다지도 정답게 친하게 생각되나 몰랐기 때문입니다.

곁에 있는 아이가 형과 같기도 하고, 동생 같기도 하고 계집애들은 누이동생 같기도 하고, 누나 같기도 하고, 그리고 어머니 같기도 했습니다. (『숲 속 나라』, 『어린이나라』 제1권 제2호, 1949, 14면.)

걸핏하면 때리기 잘 하던 그 선생님을 생각할 때마다 우리를 때리지 않고 늘 웃

으시며 가르쳐 주시는 이 학교 선생님들이 마치 아버지나 어머니 같은 생각이 든
답니다. (『숲 속 나라』, 『어린이나라』 제1권 제6호, 1949, 21면.)

“애들이 잘 자나?”

노마가 일어나서 자고 있는 동무들을 돌아다니며 보았습니다.

“이불을 차 던지고 자면 배탈 난다.”

이불도 고쳐 덮어 주었습니다. 베개도 다시 바로 베어 주었습니다. (『숲 속 나
라』, 『어린이나라』 제1권 제7호, 1949, 7면.)

영이는 막내의 이마를 짚어보며

“막내야, 내 너의 누나가 되어주마.”

하었습니다. (『숲 속 나라』, 『어린이나라』 제1권 제12호, 1949, 16면.)

『숲 속 나라』에서 강조되는 가족애가 중요한 것은 그것이 개인의 자발
성에 의해 발현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어린이들은 누가 요구하지 않았는
데도 서로를 가족처럼 보살핀다. 해방을 맞이한 후에도 일제에 의해 상실
되었던 것들은 여전히 회복되지 않았다. 해체된 가족은 복원되지 못했고
새로운 조국의 모습은 불투명하기만 했다. 해방정국이란 특수한 상황에서
도 이원수 문학의 본질이 여전히 그리움에 닿아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그리움은 더 간절해졌지만 가족의 복원은 요원해졌다. 이와 같은 시대적
상황은 해방 후 이원수 문학의 아동상이 그리움의 정서에 머물지 않고 더
나아가 주체적으로 변모하게 된 주요한 요인이기도 하다. 『숲 속 나라』에
서 가족애가 유독 강조되는 것도 같은 이유이다. ‘숲 속 나라’에서 어린이
들은 서로에게 가족이 되어줌으로써 상실된 가족을 스스로 회복하고 있
다. 그리고 이것은 민족 구성원 모두가 가족애를 발현해 가족 공동체와 같

은 조국을 건설하지는 작가의 목소리이기도 하다. 가족의 복원은 우리민족에게 있어선 상실된 조국의 회복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숲 속 나라’는 ‘소년회’의 유토피아적 형상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오월의 노래』에서 ‘소년회’는 기원을 상실한 이들의 그리움이 가족애로 환원되는 공간이었다. 그것을 바탕으로 이원수는 『숲 속 나라』에서 ‘소년회’의 유토피아적 형상화로서 ‘숲 속 나라’를 탄생시켰다. 그리움이 가족애로 환원된 공간에서 새로운 가족이 탄생한 것이다. 이원수가 창조해낸 ‘숲 속 나라’가 가족 공동체의 형태를 띠고 있다는 점은 이원수 문학의 지향점이 가족에 있음을 확인 시켜준다. 이때 가족은 상실된 기원으로서 고향, 아버지, 조국 등으로 이해될 수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4. ‘소년회’와 문학적 기원

이원수는 해방을 맞이한 1945년(35세) 10월 함안군에서 서울로 올라와 서울 경기공업학교에 교사로 취직한다. 당시 경기공업학교의 교장이었던 첫째 동서 고백한의 권유가 있었기 때문이다. 1947년(37세)에는 경기공업학교를 사직하고 박문출판사의 편집국장으로 일하게 된다. 이처럼 해방기는 이원수 개인적으로 많은 변화가 일어난 시기이다. 근거지를 함안에서 서울로 옮겼으며, 그 사이 다섯 아이가 태어나기도 했다. 그런 번잡함 중에도 그는 동시집인 『종달새』(새동무사, 1947)와 『봄잔치』(박문출판사, 1949)를 출간했으며, 『주간 소학생(소학생)』, 『어린이나라』, 『진달래(아동구락부)』, 『새동무』와 같은 잡지에도 꾸준히 작품을 게재한다. 또 『오월의 노래』와 『숲 속 나라』를 발표함으로써 운문에서 산문으로의 변화라는 전기를 마련하기도 한다.

서울로 올라온 뒤 중앙문단에서의 활동도 눈여겨볼 만하다. 이원수는 1945년 9월 17일 이기영을 대표로 결성된 조선프로레타리아문학동맹에 가입한다. 아동이 처한 현실을 주목했던 작품경향으로 볼 때 이원수는 일정부분 카프에 공감하고 있었다. 하지만 이원수는 카프에 직접 가담하지 않으며 거리를 두고 있었다. 앞서 살펴보았듯 이원수 문학은 그리움을 본질로 상실된 것들에 대한 회복을 지향한다. 이원수의 이러한 문학적 지향은 현실에 굳건히 발을 디디고 있기에 카프 문학의 과도와 관념성과는 차별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그렇다면 해방 후 이원수가 조선프로레타리아문학동맹에 가입한 이유는 무엇일까. 이에 대해 원종찬은 이원수가 일제시대에 『별나라』와 『신소년』의 편집 동인으로 활동한 송영·박세영·신고송·이동규·홍규·이주홍·송완순·박아지·정청산 등의 인맥을 따라 조선프로레타리아문학동맹에 가담하게 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따라서 이후 이원수가 카프의 자기반성으로 성립한 조선문학가동맹에 자기 노선을 일치시킨 것은 매우 당연한 귀결이라는 것이다.¹⁴

이원수의 친일 작품을 발굴해낸 박태일은 해방 후 이와 같은 이원수의 행보에 대해 「나라 잃은 시대 후기 경남·부산 지역 어린이문학」이라는 논문에서 그가 친일문학에 대한 의도적 망각이나 착종 상태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박태일은 또 그가 오래도록 머물렀던 마산·함안 지역을 버리고 서울로 올라온 것, 뒤늦게 조선프로레타리아문학동맹에 가입한 것, 운문에서 산문으로 나아가 문학적 쇄신을 꾀했던 점 등을 들면서 이 모두가 이원수가 자신의 부끄러운 친일 행적을 관리하기 행동이라고 말하고 있다.¹⁵

14 원종찬, 「이원수 판타지동화와 민족현실」, 『아동문학과 비평정신』, 창비, 2005, 122면.

15 박태일, 「나라 잃은 시대 후기 경남·부산 지역 어린이문학」, 『유치환과 이원수의 부왜문학』, 소명출판, 2015, 247~260면.

1926년 15세의 나이에 『어린이』지에 「고향의 봄」이 실리면서 오래도록 아동문학작가로 명성을 쌓아 온 이원수에게 있어서 일제말의 친일문학은 지워버리고 싶은 과거임에 틀림없다. 가족의 복원을 지향하는 이원수 문학에 있어서 비판의 대상자는 가족을 해체시키는 장본인 바로 일본제국주의였다. 따라서 가족의 복원을 위해 일본제국주의에 맞선 이원수의 문학이 민족주의적이고 항일적인 성격을 띠며 조국의 회복을 지향하게 된 것은 당연한 일인 것이다. 하지만 일제말의 친일문학은 자신의 문학의 본질과 지향을 배반하는 일이었기에, 이원수가 의도적으로 망각하고 착종 상태를 보이고 있다는 지적은 일견 타당한 것이다.

본고는 이원수가 운문에서 산문으로 나아가는 중심에서 ‘소년회’를 소환한 것에 대한 문제의식으로부터 출발했다. 박태일은 이원수의 문학적 전기에 대해 ‘운문에서 산문으로 나아가 문학적 쇄신’을 꾀했다고 분석하고 있다. 하지만 그것을 단순히 형식의 변화로만 치부하는 것은 이해를 돕기에 불충분하다. 왜냐하면 형식의 변화는 내용의 변화 또한 함의하고 있기 때문이다. 운문에서 산문으로의 이행이 형식에 해당한다면 ‘소년회’는 그 내용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원수의 문학적 쇄신은 자신의 문학적 기원을 회복하려는 시도로 봐야한다. 그 중심에 ‘소년회’가 있기 때문이다.

마산 신화소년회를 조직한 1925년은 이원수에게 매우 특별한 한 해이다. 1925년은 아버지가 죽은 해이자 방정환과의 만남으로 아동문학에 첫 발을 내디딘 해이기 때문이다. 방정환은 1925년 3월 22, 23일 이틀간 노동야학교에서 열린 신화소년회의 창립 축하회에 참석한다. 이때 방정환을 만나 힘을 얻은 이원수는 『어린이』지에 「고향의 봄」을 투고하고, 이듬해 『어린이』지에 게재됨으로써 아동문학에 입문하게 된다.

이원수는 「소과 선생의 감화를 받고」란 글에서 아동문학을 하게 된 동기를 아래와 같이 말하고 있다.

1920년 이후 소년 운동의 횃불을 든 소파 방정환 선생의 감화를 받은 데 있다고 하겠습니다.

불행한 민족의 한결 더 비참한 그들의 자녀들을 사랑하고 올바르게 자유롭게 기르자는 그 시대 소년 운동과 더불어 아동 문학의 싹은 트고 있었습니다.

잡지 《어린이》를 통해서 깨끗한 동심의 문학 작품을 써보고 싶은 의욕은 대단한 열로 내 가슴에 불탔습니다. (『아동과 문학』(이원수아동문학전집30), 238면.)

실로 1925년은 소년 이원수에게 문학적 기원이 되는 해임이 분명하다. 위의 글에서 이원수는 아동문학의 발흥을 소년운동의 자장 안에서 일어난 것으로 파악하고 있는데, 이러한 인식은 자신의 문학적 기원을 돌아보는데 있어서 ‘소년회’를 소환한 근거가 된다. 이원수가 스스로 소년운동을 문학의 기원을 삼고 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이원수의 문학은 소년운동 즉 소년회 활동 속에서 배태되었고 그 안에서 문학의 본질과 지향점을 형성해 나간 것이다.

하지만 일제 말 친일문학은 문학의 본질과 지향점을 배반하는 일이었으며 이로써 이원수는 자신의 문학적 기원을 상실하고 만다. 본고는 이원수가 『오월의 노래』와 『숲 속 나라』에서 ‘소년회’를 소환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본다. ‘소년회’는 그리움이 가족애로 환원됨으로써 상실된 기원을 회복시켜주는 공간이기 때문이다.

소년 시절 - 그것은 슬프고 감미로웠다. 세정 모르고 뛰노는 행복은 없었지만 깊이 느끼고 슬퍼하고 또 의와 불의에 대해 마음 썼던 어린 시절이었다.

그 어떤 의지도 없는 가난을 밑바닥으로 자라면서 나는 식민지 백성의 아들딸의 마음을 노래했었다. (「노래 고개 넘는 데 예순 해가」, 『아동과 문학』(이원수아동문학전집30), 247면.)

위의 글에서처럼 이원수의 소년시절은 그의 문학의 본질과 지향점이 고스란히 살아 있는 공간이다. ‘소년회’는 소년시절의 표상으로서 자신의 문학적 기원으로 돌아가는 데 가장 유용한 도구였을 것이다. 따라서 이원수가 『오월의 노래』와 『숲 속 나라』에서 ‘소년회’를 소환한 것은 스스로가 상실한 문학적 기원을 회복하려는 시도로 볼 수 있다.

『오월의 노래』(1950)와 『숲 속 나라』(1949)가 어린이잡지에 연재되던 시기는 보도연맹(1949.4)이 결성된 때이다. 조선프로레타리아문학동맹에 가입 전력이 있는 이원수는 1949년 보도연맹에 가입한다. 김명인은 이원수 당시의 기조를 ‘비판성이 내재된 감상성’이라고 말하며, 이러한 비판성이 보도연맹에 가입한 1949년을 고비로 현저하게 추상적이고 내면적인 방향으로 기울어지는 현상을 보인다고 지적하고 있다.¹⁶ 당시 이원수가 문학적으로 얼마나 위축되어 있었는지를 알 수 있는 대목이다. 그런데 산문에서는 이와는 다른 양상을 보인다. 『숲 속 나라』에서 이원수가 구상하고 있는 유토피아는 계급주의적·사회주의적인 색채를 강하게 띠고 있다.

① “아버지, 저 애는 과자장사 해도 돈을 안 받으니 밀리지 않아요?”

“아냐, 재는 과자장수가 아니다. 아이들이 만든 카라멜을 노나 주러 다니는 거란다.”

노마는 카라멜을 먹으며 전에 살던 동네에서 길거리마다 사탕장사 하는 아이들을 보던 것과 비교하여, 여기는 참 별스런 곳이라 생각하면서 아버지와 같이 시내 언덕길을 따라 아래쪽으로 내려 갔습니다. (『숲 속 나라』, 『어린이나라』 제1권 제5호, 1949, 29면.)

16 김명인, 『자명한 것들과의 결별』, 창비, 2004, 474면.

② “음! 양반의 세상에서는 사과장수가 되는 수도 있겠지. ……여기는 쌍놈들의 세상이야. 쌍사람은 쌍사람끼리 살아야 하거든!”

이렇게 혼자 말씀하시는 것이었습니다.

노마는 어리둥절해서

“아버지, 여기가 왜 쌍놈의 나라예요?”

하고 물었습니다.

“쌍놈의 나라지! 우리가 다 쌍사람이니까 그렇지 않으나. 날이 새면 밭 갈고, 쇠 두들기고, 짐 나르고, 짐 짓고, 베짜고, 음식 만들고……. 이게 다 양반들은 아니하는 일들이야.”(『숲속 나라』, 『어린이나라』 제1권 제5호, 1949, 31면.)

①의 예문을 통해 우리는 ‘숲속 나라’가 공동생산과 공동소유를 원리로 하는 사회임을 알 수 있다. 이 외에도 ‘숲속 나라’가 사회주의를 지향하고 있음을 드러내는 요소들은 적잖이 발견된다. ‘숲속 나라’에 들어간 노마에게 무상으로 새 옷을 지급한다거나, ‘숲속 나라’로 들어온 친구들에게 역시 무상으로 집을 제공하고, 식당에서 싼 값에 음식을 주는 것들이 그 예에 해당한다. ②에서는 노마 아버지의 입을 통해 ‘숲속 나라’가 ‘쌍놈의 나라’임을 밝힘으로써 계급주의적 인식을 보여주고 있다. 실제로 ‘숲속 나라’로 노마를 찾아왔던 친구 중 순이와 순동이는 다시 집으로 돌아가는데, 두 아이의 부모가 반대했기 때문이다. 순이 아버지가 높은 관리이고 순동이 아버지가 돈을 많이 버는 장사꾼이라는 설정 역시 계급주의적인 ‘숲속 나라’의 정체성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놀라운 사실은 이와 같은 계급주의적·사회주의적 색채를 강하게 띤 『숲속 나라』를 보도연맹이 출범한 현장인 서울에서 발행되는 잡지에 1949년 2월부터 1949년 12월까지 9회에 걸쳐 연재하고 있었다는 것이다.¹⁷⁾ 물론 아동문단이 성인문단에 비해 사상적 검증에 있어서 비교적 자

유로운 지대에 놓여 있음은 사실이다. 하지만 그러한 사실을 감안하더라도 이념 대립의 갈등이 극에 달하던 시기에, 사상적으로 의심 받고 있는 자리에서 ‘숲 속 나라’와 같은 유토피아를 구상했다는 것은 간과할 수 없는 부분이다. 이로써 도입부분에서 인용했던 이원수의 발언—“그런 세상에서 자라는 아동들의 형편을 보고 동시를 쓰는 나의 마음은 울분과 탄식에 젖어들지 않을 수 없었다.”, “동시로써 내 가슴이 후련해질 까닭이 없었다. 동화를 쓰자, 소설을 쓰자, 그런 것으로 내 심중의 생각을 토로해 보자는 속셈이었다.”—이 허언이 아니었음은 증명된 셈이다.

이러한 이원수의 창작 의지는 그의 산문에서 ‘소년회’를 소환했고, ‘소년회’를 통해 창조된 새로운 나라인 ‘숲 속 나라’는 지배이데올로기에 맞섬으로써 비판적 리얼리즘의 면모를 한층 강화한다. 이것이 해방기라는 긴장되고 어지러운 시기에 친일문학에 대한 자기반성의 기회를 놓친 이원수가 택한 방법이었다.

5. 맺음말

이원수는 수많은 동요와 동시, 동화, 소년소설, 수필, 아동문학평론, 아동극을 발표하며 소파 방정환과 함께 한국 근대아동문학을 이끌어간 선구자다. 특히 이원수는 아동문학사에서 비판적 리얼리즘이라는 한 축을 일구어낸 장본인이기도 하다. 동화와 소년소설로 대표되는 산문은 이원수 문학의 비판적 리얼리즘의 성격을 강화하는 역할을 했다. 이원수 문학이 운문에서 산문으로 변화하는 시기는 바로 해방기다. 해방기는 이원수에게

17 1954년에 신구문화사에서 출간된 개정판에서 ①은 윤동희 장면으로, ②의 ‘쌍놈의 나라’는 ‘괴로운 일도 배고픈 일도 없는 곳’이라는 표현으로 완화된다.

있어서 운문에서 산문으로의 변화라는 전기(轉機)적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그 첫 자리에 『숲 속 나라』와 『오월의 노래』가 놓여 있다. 특기할 사항은 『숲 속 나라』와 『오월의 노래』의 중심에 ‘소년회’가 있다는 사실이다. 본고의 문제의식은 여기에서 출발한다. 해방기라는 특수한 상황은 이원수 개인에게 있어서는 친일문학이라는 죄책감을 안고 있는 시기이기도 했다. 따라서 산문으로 옮겨간 후 첫 작품에 해당하는 『숲 속 나라』와 『오월의 노래』에서 ‘소년회’를 소환했다는 사실은 주목할 만하다.

이원수는 1925년 마산 신화소년회를 조직해 활동하기 시작하는데, 이 해는 이원수에게 있어서 문학적 기원이 되는 해이다. 1925년은 사랑하고 존경했던 아버지가 세상을 떠난 해이며, 방정환을 만난 감동이 아동문학에 대한 열정으로 이어진 해이기도 하다. 이 해에 이원수는 「고향의 봄」을 『어린이』에 투고하고, 이듬해인 1926년에 『어린이』에 실린 것을 계기로 소년문예사로 활동하며 전국적인 명성을 얻기 시작한다. 이원수 문학의 본질은 상실된 기원에 대한 그리움에 있다. 소년 이원수에게 있어서 상실된 기원은 고향과 가족이라는 협소한 범위에 머물러 있었다. 소년회 활동은 그를 민족과 조국에 대해 각성하는 계기로 작용한다. 일제강점기 우리 민족은 모두 조국이라는 기원을 상실한 존재였다. 이원수 문학에서 우리 민족은 자연스럽게 상징적 아버지인 조국을 상실한 어린이의 자리에 놓이게 된다. ‘우리민족 = 어린이’라는 상정은 이원수 문학의 본질인 그리움이 가족애로 환원될 수밖에 없는 필연성으로 작용한다. 따라서 이원수 문학은 아버지를 찾기를 통한 가족의 복원(조국의 회복)을 문학의 지향점으로 삼게 됨으로써 비판적 리얼리즘의 선두에 서게 된다.

『오월의 노래』에서 ‘소년회’는 그리움이 가족애로 환원되는 공간이며, 『숲 속 나라』에서 ‘소년회’는 그리움이 가족애로 환원됨으로써 복원된 가족을 국가의 형태로 형상화 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원수는 왜 해방기에

‘소년회’를 소환한 것일까? ‘소년회’는 소년시절의 표상으로서 자신의 문학적 기원으로 돌아가는 데 가장 유용한 도구였을 것이다. ‘소년회’는 이원수 문학의 기원이며, 이원수 문학의 본질과 지향점을 함의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원수는 『오월의 노래』와 『숲 속 나라』에서 ‘소년회’를 소환함으로써 친일문학으로 상실된 자신의 문학적 기원을 회복하려 한 것이다. 이원수의 이러한 시도는 계급주의적이고 사회주의적인 양상을 띤 ‘숲 속 나라’를 창조해낸다. 이원수의 자기반성은 이렇게 그의 작품 속에서 지배이데올로기에 맞서는 비판적 리얼리즘을 강화하는 형태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참고문헌

1. 기본 자료

「숲 속 나라」, 『어린이 나라』, 1949. 2~1949. 12(9회).

「어린별들」, 『오월의 노래』, 웅진출판, 1994.

이원수아동문학전집 1~30, 웅진출판, 1984.

2. 논문 및 평론

이원수, 「아동문학 프롬나드」, 『아동문학』, 제12집, 1965, 7·8월호.

임인수, 「새로운 아동상을 찾아서」, 『아동문학』, 제11집, 1965, 3·4월호.

3. 단행본

김명인, 『자명한 것들과의 결별』, 창비, 2004.

박태일, 『유치환과 이원수의 부왜문학』, 소명출판, 2015.

원종찬, 『아동문학과 비평정신』, 창비, 2005.

_____, 『한국 아동문학의 쟁점』, 창비, 2010.

이원수 탄생 백주년 기념문집 준비위원회, 『이원수와 한국아동문학』, 창비, 2011.

Abstract

Essence and Direction of Won Soo Lee's Literatures

—Focusing on Proses in Liberation Period, 'May song' and 'Forest country'—

Kim Yoonjung

'May song' and 'Forest country' which are Won Soo Lee's long novels for the youth published in Liberation period revealed the essence and direction of his literatures strongly. The common thing of 'May song' and 'Forest country' is 'Junior Group.' In both works, the essence and direction of his literatures were revealed by 'Junior Group.'

Won Soo Lee initiated to organize Shinhwa Junior Group in Masan in 1925 when was the origin of his literature. The essence of Won Soo Lee's literature is longing for the lost origin. For young Won Soo Lee, the lost origin was remained within the narrow boundary of hometown and family. Activities of 'Junior Group' had worked as the momentum to remind of his homeland and nation. Introduction of 'our ethnic group = children' works as the inevitability that longing, an essence of Won Soo Lee's literature, has to return to the family love. 'Junior Group' in 'Forest country' is the space that longing returns to the family love and 'Junior Group' in 'Forest Country' crystalizes the recovered family into the form of nation upon returning to the family love.

Then, why did Won Soo Lee recall ‘Junior Group’ in Liberation period? ‘Junior Group’ might be the best useful tool to return to the origin of his literature which was contaminated by Pro-Japanese literatures as the symbol of youth. Because ‘Junior Group’ is the origin of Won Soo Lee’s literature and implicated the essence and direction of his literature.

■ Keywords: May song, Forest country, prose, junior group, longing, origin of literature

■ 논문접수일: 2018. 11. 15. / 심사기간: 2018. 11.22~12.02. / 게재확정일: 2018. 12.05.